

2026/04/13

김광식 책임연구원
20250021@iprovest.com

자동차

테슬라 FSD 유럽 첫 승인, 유럽 자율주행 규제 전환 시작

테슬라 FSD Supervised 승인, 유럽 내 최초의 비고속도로 레벨2 DCAS 시스템 승인 확보
자율주행 규제, 기능/사양 중심에서 안전성 입증 중심으로 전환되며 고도화된 ADS 경쟁 본격화 전망

테슬라 FSD 네덜란드 승인: 유럽 전 지역 확장까지 한 보

4월 10일 네덜란드 RDW(차량국)이 1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테슬라 FSD Supervised 승인하며 유럽 내 최초 FSD 승인 사례 등장. 11일부터 테슬라는 네덜란드 사용자에게 OTA 업데이트로 FSD v14.2.2.5를 배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 이번 승인은 완전자율주행 허가가 아니라 운전자 통제형 보조 시스템에 대한 형식승인으로, 운전자는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자율주행 선도국은 향후 몇 달 안에 네덜란드 결정 검토 후 동일 조치 취할 것으로 예상. 이후 유럽연합 전역 승인을 얻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예정으로 단순한 국가 단위 승인을 넘어 유럽 전역 확장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음. 테슬라는 여름 내 유럽 전역으로의 승인 목표로 언급. 기존 유사 승인 선행 사례 포드/BMW 존재하나, 테슬라는 고속도로에 한정되지 않은 보다 넓은 기능 범위로 첫 승인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UNECE: 안전성 평가 체계 전환, ADAS 경쟁 본격화

이번 승인 배경에는 26년 1월 채택되고 2026년 6월 WP.29 표결(승인 시 50개 이상 회원국 즉시 적용)이 예정된 UNECE의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초안의 영향 있었을 것이라 판단. RDW는 이번 승인을 기존 형식승인 절차 안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번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초안은 기존의 사양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모니터링 중심의 결과 기반 접근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테슬라와 같은 비전 중심 체계에 명확한 제도적 정당성 제공 가능. 동시에 이번 건의 핵심은 테슬라 단일 승인보다, 유럽 규제 체계가 레벨2+ 이상 고도화 보조 시스템과 향후 레벨3 이상 자율주행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 이는 BYD, 샤오펑, Li Auto 포함한 중국 업체에게도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간소화된 경로 제공 가능. 유럽 내 Level 2+ 및 Hands-Off ADS 기능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있으며, 27년 이후에는 중상위 차급에서 해당 기능 부재 시 상품성 저하와 점유율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 존재.

유럽 로보택시: 선도국 위주 규제 병목 완화 국면 진입

유럽 로보택시는 타지역 대비 확산 속도가 느린 편으로 핵심 원인은 규제 구조. EU는 2022년부터 완전자율주행차량 ADS 형식승인 제도 마련했으나, 소량생산 중심이고 실제 상업운행은 다시 국가별 허가와 도시별 운영구역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해 제한적인 확산 속도의 주 요인. 다만, 26년부터 선도국부터 규제 병목 완화 시작 예상. 1) 영국: 안전요원 없는 유상 운행 허가 체계 가동 및 Waymo/Wayne-Uber 런던 상업운행이 시작, 2) 독일: 운영구역/사업 허가 논의 진입, Uber-Momenta 뮌헨 레벨 4 시범 운행 준비, 3) 스위스: 25년 자율주행 조례(OAD) 시행령 발효 이후 실제 승객 대상 무인 허가, WeRide 취리히 권역 무인 로보택시 허가 확보, 4) 크로아티아: Uber-Pony.AI-Verne 상업화 경로 구체화 통해 유럽도 제한적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는 흐름 전망.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6.03.31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5.9%	2.7%	1.4%	0.0%

【 업종 투자의견 】

-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식재)

-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